

발간등록번호 77-4680029-000001-14

소통하는 익산시의회
시민과함께 만들어 갑니다.

익산시의회
의정소식

제9대 의회 개원 1년 2022. 7. 1. ~ 2023. 6. 30.

목차(안)

1. 의장 인사말
2. 익산시의회 역사속으로
3. 지역구별 의원 현황
4. 제9대 전반기 익산시의회 구성
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6. 제9대 의회 1년 의정활동 성과
7. 상임/특별 위원회 의정활동 성과
8. 의원별 의정활동
9. 의원 연구단체 활동
10. 주요 의정활동
 - 1) 본회의 운영현황
 - 2) 상임/특별위원회 운영현황
 - 3) 시정질문
 - 4) 5분 자유발언
 - 5) 건의안 및 결의안

의장인사말

익산시의회 의장 최종오

“희망찬 익산의 미래를 위해
익산시의회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를 안고 개원한 제9대 익산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익산시의회를 향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는 ‘화합하는 상생의회’, ‘시민중심 열린의회’, ‘신뢰받는 바른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가까운 곳에서 시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맞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시민과 함께해온 익산시의회의 지난 1년 간의 활동상을 담은 의정소식지 발간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우리 지역 곳곳의 현장으로 달려가 시민들의 삶을 살피며 시민의 뜻이 시정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무엇보다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입법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울곧게 대변하고 시정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익산시의회 의원 25명은 시민의 진정한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이 익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며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지역구별 의원 현황

선거구	읍면동	의 원 명
선거구 가	읍면동 모현, 송학	의원명 박철원, 최재현, 최종오
선거구 나	읍면동 중양, 평화, 인화, 마동	의원명 김충영, 이종선, 장경호
선거구 다	읍면동 오산, 남중, 신동	의원명 강경숙, 박종대
선거구 라	읍면동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	의원명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선거구 마	읍면동 어양	의원명 오임선, 한동연
선거구 바	읍면동 삼기, 영등2, 삼성	의원명 김경진, 신용, 정영미
선거구 사	읍면동 동산, 영등1	의원명 김진규, 손진영, 유재구
선거구 아	읍면동 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	의원명 김순덕, 소길영, 이종현
	비례대표	의원명 김미선, 양정민, 송영자

4. 제9대 전반기 익산시의회 구성

의 장	최 종 오		
부의장	한동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김진규	부위원장 김미선	위원 박종대,소길영,양정민,정영미,최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장경호	부위원장정영미	위원 강경숙,김미선,김진규,신용,이종현,조규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임선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송영자, 양정민, 조남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김충영	부위원장 소길영	위원 김경진, 박종대,유재구,이종선,조은희,한동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조남석	부위원장 이종현	위원 강경숙,김경진, 손진영, 송영자, 조은희

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개원식

의원선서

다이로움 밥차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방문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경주시의회 간담회

일본 분고오노시의회 간담회

2023년도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익산시의회-원광대 협약식

익산시의회-전라북도교육청 간담회

도시관리공단 시민공청회

인사청문 협약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초선의원워크숍

청렴결의대회

여성비하 언어폭력 근절운동

2022 서동축제

4·4만세운동 기념식

6. 제9대 의회 1년 의정활동 성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성과 - 의회운영위원회

보다 내실있는 의회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새로 구성된 제9대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회와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 마련에 노력했으며, 지방자치의 여건 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곧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썼다.

제243회 임시회부터 제251회 제1차 정례회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청취하며 원활한 회기 운영과 의원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힘썼다.

또한, 의장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장단 선출 시 후보자등록제 방식을 도입하도록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으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각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승인하여, 2022년에는 ‘익산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 ‘익산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 ‘익산시의회 여성가족 정책 연구회’ 등 6개의 연구단체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다.

시민을 위한 활발한 정책 제안을 펼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기관 및 부서의 정책들을 점검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에 노력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정을 다했다.

제243회 임시회부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동안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 등 조례안 54건, 동의안 16건 등 총 84건의 안건심사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제도 정비에 힘쓰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특히, 「우리동네 행복 더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낭산 농공단지, 영등2동 상권르네상스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각종 민원과 지역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시민들의 삶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독려했다.

또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내 시·군의회 최초로 실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발한 정책제안 활동에 더욱 매진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삶과 맞닿은 복지, 여성가족, 보건, 환경 분야의 시정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43회 임시회부터 제251회 제1차 정례회까지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빗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포함한 조례안 36건, 동의안 14건 등 총 67건의 안건심사를 통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했다.

아울러, 회기뿐 아니라 비회기기간에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인화공원 조성사업지,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지 등 주요사업지를 방문해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 속에 더 깊이 스며들어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익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시 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감독하며 쌀값 하락 등으로 위기를 겪는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제243회 임시회부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동안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익산시 농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조례안 25건, 동의안 6건 등 총 6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입안에 힘썼다.

또한, 회기뿐 아니라 비회기기간에도 마동근린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지 등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침수피해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발생 현장을 찾아나서고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 익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성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제9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익산시 예산안과 결산의 종합적인 심사를 담당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간의 임기로 운영되며,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 생활 밀접 예산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여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침체된 골목상권 등 익산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려운 재정여건과 장기화로 접어든 경제 침체상황에 대응하고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해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 목적 달성이 불투명한 예산은 가려내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데 집중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시의회
의원별 의정활동

5분 자유발언
강경숙 의원(오산면, 남중동, 신동)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 필요성

강경숙 의원은 제247회 임시회에서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에 관해 역설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많은 지자체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적지않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강 의원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 재해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재해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피해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민사 합의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게 분쟁을 매듭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재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 재해보험을 통해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김경진 의원(삼기면, 영등2동, 삼성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의 탄력적 운영 제안

김경진 의원은 제247회 임시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의 탄력적 운영에 관해 제안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기,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2차선 도로는 30km이내로, 통행량이 많은 4차선 이상 간선도로는 50km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속도제한시간 운영이 24시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들이 활동하지 않는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규정 속도를 10km 상향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30km로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권고사항으로 익산시와 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교통운수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행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
김미선 의원(비례대표)

관내 업체 우선 발주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김미선 의원은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역 업체 우선 계약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상권과 지역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업체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3년 간 2천만원 수의계약 총 2,271건 중 타 지역업체 계약 건은 253건, 12%에 달해 여전히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보호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익산시도 공개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익산시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의 크고 작은 용역, 납품, 행사 등의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지역 업체 우선 계약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특정업체로 계약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계약부서별 연 4회로 제한을 두고 내부 모니터링 장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

김순덕 의원(낭산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팔봉동)

팔봉군경묘지 및 공설묘지를 찾는 추모객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 제안

김순덕 의원은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팔봉 군경묘지 및 공설묘지를 찾는 추모객들과 시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최근 공설묘지에 대한 인식은 단순 매장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휴식과 교육, 문화 및 힐링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는 조각공원 조성, 바닥분수대 설치, 포토존, 야생화 식재 등 공원묘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익산시의 공원묘지를 살펴보면 쉼터는 고작 5~6곳 정도이며, 제2자연장은 파고라가 있기는 하지만 야적물들이 쌓여있고, 군경묘지 입구 왼편 A지역에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산책길과 벤치가 있지만 이 작은 산책길 바로 옆, B지역은 나무와 덩굴들이 뒤섞여 정글처럼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A지역과 B지역을 정비하여 산책길, 테이블 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면 추모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흡하나마 지역주민들의 공원에 대한 염원도 해소될 것이라면서 공원화 사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
김진규 의원(동산동, 영등1동)

음식문화의 거리 문제점 및 향후 관리 방안

김진규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음식문화의 거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영등1동과 어양동이 연결된 음식문화의 거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관개선, 관광거점, 도시재생 등을 위해 조성됐지만 상권 침체와 무관심으로 활로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콘텐츠 부재, 주차난, 불법 쓰레기 투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갈수록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시적인 익산 관광 로드맵과 더불어 상업적인 경제성을 높이면서 트렌드에 발맞춰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음식문화의 거리 인근에 완충녹지라는 도시녹지 공간이 있어 시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곳을 음식문화 거리와 연계해 부산 서면 먹거리 골목, 여수 낭만포차 거리와 같이 트렌드에 맞게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익산시에서 인근 주택과 공장 등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만들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음식문화의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김충영 의원(중암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평화동·인화동 공구거리 활성화 방안 제안

김충영 의원은 제247회 임시회에서 평화동·인화동 공구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상징성 있는 조형물의 설치를 제안했다.

익산역에서 버스터미널 구간, 평화사거리에서 인화사거리 구간 내에 노후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들이 ‘전라북도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을 통해 익산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에 맞게 디자인된 간판들로 교체되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타 지역처럼 우리시도 공구거리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는 평화사거리나 인화사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공구거리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공구 관련 특화거리로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화거리로 조성된다면 각종 공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경쟁력 있는 제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구거리 인근에 폐·공가가 많이 존재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공구거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분 자유발언

박종대 의원 (오산면, 남중동, 신동)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익산시 유치 촉구

박종대 의원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한 익산시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당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도 조금 더 속도를 내어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과 유치할 공공기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익산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분석을 통해 유치 타깃기관을 설정하고 익산만의 강점을 담은 기관별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KTX익산역을 중심으로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 입지를 검토하고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치권과 행정, 전 시민이 원팀이 되어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질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대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 방향으로 협력하여 유치전략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질문
박철원 의원 (모현동, 송학동)

3년 후 익산시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인한 대책 마련,
배산공원 자체매입 및 익산역 주변 성매매촌 도시정비 촉구

박철원 의원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3년 후 익산시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인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배산공원 자체매입, 익산역 주변 성매매촌 도시정비를 촉구했다.

지난 10년 간 공급된 아파트는 6천 5백 세대인데 3년 후 4배나 많은 2만 7천 세대가 공급되어 익산시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패닉상태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익산시는 어떠한 주택공급정책과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당초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배산공원은 그 상징성과 보존가치를 이유로 자체매입으로 전환됐는데 이후 매입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며, 앞으로 배산공원이 임대가 아닌 영구적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모금운동, 고향 사랑기부금, 기금조성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 자체매입을 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익산역 근처에서 영업 중인 성매매 집결지가 도시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으며 대부분 노후 건축물로 화재의 위험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시킨 전주시와 충남 아산시와 같이 도시환경정비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시정질문
소길영 의원
(낭산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팔봉동)

영농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제시

소길영 의원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멀칭 재배 기술과 하우스 재배 기술은 농작물의 생육기간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농업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지만 재배과정에서 버려지는 비닐과 농약병 등 폐기물 처리 문제는 농촌의 오랜 과제로 남은 실정이다.

소 의원은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은 농민들이 각 읍면동 지정장소에 모아 놓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지만 이중 약 19%인 6만 톤 정도는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토양매립 또는 불법으로 소각되어 토양 및 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익산시에는 시행지침에 따라 수거방법을 마련했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며, 거점 마을 폐비닐 집하장도 자체 폐쇄되었거나 불법 쓰레기들과 혼재되어 처리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선진형 수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 의원은 규모 있는 공동 영농폐기물 거점 집하장을 각 읍면지역에 1곳씩 설치하여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활용 비닐 수익금은 지역의 공동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
손진영의원 (동산동, 영등1동)

돌봄노동 가치 정립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손진영 의원은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소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공백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고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질 좋은 노인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가족의 부담과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손 의원은 이처럼 돌봄노동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에도 그 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어 있으며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돌봄의 질을 높이는 계획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고 무엇보다 지나치게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김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돌봄서비스가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되어버리다보니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돌봄의 질과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돌봄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나아가 이것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송영자 의원(비례대표)
한센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 촉구

송영자 의원은 제247회 임시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수호를 위한 한센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을 촉구했다.

익산마을, 금오마을, 신촌마을, 상지마을 4개의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 중인 한센인들의 평균 연령은 79세로 자녀들의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가족돌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반 요양병원에서도 다른 환자나 가족들의 다가운 시선과 멸시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송 의원은 전염병 통제라는 국가적 사업 때문에 과거 한센인들을 특별관리했고 이에 따라 낙인과 차별 속에 평생을 살아온 한센인 어르신들이 이제부터라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센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한센인 전문 요양병원 설립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한센인 전문요양병원 설립은 단순히 투입 대비 성과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공급 등 일반적인 접근을 벗어나서 바라봐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면서 익산시가 한센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전문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
신 용 의원
(삼기면, 영등2동, 삼성동)

유기동물과 고독사 취약가구 연계방안 마련

신용 의원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과 고독사 취약가구의 연계방안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산시의 유기동물이 2018년 1,074마리에서 2021년 1,622마리, 2022년 10월 1,370마리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는 유기동물 또한 2019년 39마리에서 현재 209마리로 5배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독사 취약 1인 가구와 유기동물을 연계하는 사업을 벌여 고독사 취약가구의 우울감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막아 고독사를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기동물을 고독사 취약가구와 연계 시 오히려 파양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기동물의 행동문제를 교정하여 고독사 취약가구에 유기동물을 잘 적응시켜 파양률을 낮춰야 한다면 나아가 농림축산부에서 2023년 추진예정인 유기동물입양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기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
양정민 의원
(비례대표)

청년예산 축소 반대

양정민 의원은 제247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청년예산 축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청년예산 증액을 건의하는 ‘청년예산 축소 반대 건의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을 축소할 것과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기간과 규모를 줄인 것은 청년에게 좌절감을 주고 청년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과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예산을 축소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축소했는지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건전재정, 긴축재정이라는 명목하에 축소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감액된 청년정책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정부는 청년정책 공약에 대한 약속이행은 물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
오임선 의원
(어양동)
어양동 송전선로 지중화 및 송전탑 철거사업 추진

오임선 의원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어양동 인구밀집지역 인근 송전선로 지중화 및 송전탑 철거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해 발언했다.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소 등은 전기자원의 개발 및 보급에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나 입지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영등변 전소의 경우 총 1,088세대, 3,786명의 인구가 변전소와 송전탑 인근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한 채 생활하고 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에 따라 기존 송전선로 및 철탑 이전이 불가피해지면서 영등-팔봉 지중화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거론되었고, 다행히 익산시, 전북개발공사, 팔봉공원개발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4개 기관의 합의가 성사되어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600m를 연계함으로써 총 사업비가 당초 120억원보다 40억원 절감된 80억원이 소요된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 사업은 시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협치의 쾌거라면서 사업비 80억원에 대한 기관 간 부담률 협의가 잘 이루어져 사업이 무사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 신시화변전소와 같이 변전소 외관 및 환경정비를 추진해 지역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변전소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
유재구 의원
(동산동, 영등1동)

지역 안배를 고려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유재구 의원은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역 안배를 고려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와 쾌적한 정류장 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냉난방시스템, 자동스크린도어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정류장으로 영등동 2개소와 모현동, 남중동, 신동, 평화동과 함열읍 각 1개소씩 총 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유 의원은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수에 비추어 볼 때 스마트 버스 정류장의 위치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복지 차원에서 교통 약자인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내 시스템의 잦은 고장과 오류, 시설 파손, 깨끗하지 못한 정류장 주변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불편 신고나 민원 제기가 없으면 시설 보수나 개선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역별 또는 분기별 일제조사 등 주기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5분 자유발언
이중현 의원
(낭산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팔봉동)
쿠팡 물류센터 유치로 통한 물류 허브 도시 도약

이중현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에서 익산시가 쿠팡 물류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어 선점 효과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완주군 산업단지에 약 3만 평 규모의 전자상거래기업 쿠팡의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당초 협의한 토지 분양가를 대폭 올리고 다른 협의 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아 완주군과 쿠팡의 협상이 난항으로 흐르면서 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될 전망이다.

이에 이 의원은 약 1,300억 원 규모에 직접 고용 500명, 간접 고용 2,500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쿠팡 물류센터를 익산으로 가져오기 위해 유치 경쟁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이 당초 완주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로 ‘로켓배송(24시간 내 배송)’을 위해 중·남부권 중심축 역할이 가능하고 호남고속도로 익산IC와 익산KTX역이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꼽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모두 갖춘 익산시에는 확실한 호재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쿠팡 물류센터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익산시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역설했다.

5분 자유발언
이중선 의원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의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 정책 수립 촉구

이중선 의원은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의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2년 익산시는 27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해 경기참가자와 가족 등 2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숙박업, 음식업, 운수업 등 지역경제 파급력이 상당해 경제유발 효과도 무려 90억원에 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스포노믹스’라는 단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익산시가 마케팅의 차별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익산시는 도내 유일의 육상 1종 공인구장과 펜싱아카데미,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어 최적의 전지훈련지로 각광 받고 있지만 뚜렷한 스포츠 마케팅 지원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활치료사와 스포츠마사지사를 배치하여 선수들의 재활 치료와 부상 회복을 돕거나 익산시 관내 병원과 상생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의료 지원과 같은 익산시만의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 지원정책을 통해 익산시가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정질문
장경호 의원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식품도시로의 방향성 제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다이로움 카드 고도화 추진 촉구

장경호 의원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의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은 때에 시민들이 내일의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장 의원은 「식품도시 익산」을 익산시의 새로운 어젠다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시장 규모가 8조 달러 수준으로 반도체와 철강 등을 다 합한 것보다 크고, 내수시장도 자동차의 5배 이상 되는 식품산업이 익산시 미래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산업을 집중육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23년이 ‘익산 방문의 해’로서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역 앞 구도심의 여인숙과 여관을 중저가 숙박시설로 개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화폐연구회’에서 연구한 다이로움 카드 고도화 방안의 정책 적용과 다이로움 택시 활성화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
정영미 의원
(삼기면, 영등2동, 삼성동)

부송4지구 인근 주민 환경피해 선제적 대응 및 학교건립부지 주민 의견 수렴 촉구

정영미 의원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부송4지구 인근 주민 환경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건립부지 활용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덤프트럭의 이동량이 증가해 이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 때문에 인근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출입 차량 등에 필터를 설치하고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울타리 설치, 비산먼지 발생억제장치인 세륜시설 설치, 덤프트럭 운행 교육과 먼지 억제제 살포 등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당초 해당 부지에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마련됐지만, 지난 2020년 전라북도교육청이 인근 교실 수선과 증축 등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허해 무산된 후의 사업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관해 정 의원은 학교부지가 지금 당장 교육청 허가가 없더라도 일단 부지를 확보한 채 행정복지센터나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조규대 의원
(함열, 황등, 함라, 응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

망성면 균형발전을 위한 체육공원 건립 촉구

조규대 의원은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최북단에 위치한 망성면에 체육공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해 도심 다섯 곳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1인당 공원면적은 기존 6.8㎡에서 11.2㎡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지만, 지역여건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면 단위는 소외되면서 망성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1인당 공원면적은 제로이다.

따라서 현재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 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야 하는 등 변변한 공원 하나 없어서 면민들의 소외의식이 매우 팽배해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면민들이 함께 면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익산시민으로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면서 망성면 기초생활거점 1단계 사업인 ‘망성면 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총 40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해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처럼 조 의원은 나아가 익산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망성면 체육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시정질문
조남석 의원
(함열, 황등, 함라, 응포, 성당, 웅안, 망성, 웅동)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촉구

조남석 의원은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관내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173농가, 97.7ha에 이르는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익산시가 이를 단순한 자연재난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동일한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당한다면 그것은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63개 농가 중 96개 농가만 보험에 가입해 보험가입률은 58.8%라면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익산시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로 벼는 10%, 벼 이외 농작물은 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군산시는 작물에 차등을 두지 않고 25%를 추가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의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금 내역을 토대로 동일한 농가수를 가정해서 추계했을 때 약 2억원 정도면 벼 이외 밭, 과수, 원예작물까지 모두 25%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보험료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5분 자유발언

조은희 의원

(함열, 황등, 함라, 응포, 성당, 웅안, 망성, 웅동)

시내버스 지·간선제 문제점 및 대책마련 촉구

조은희 의원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내버스 지·간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22년 11월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 복지 증진과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함열과 금마, 여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전면 시행했다.

조 의원은 익산시가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시행 첫날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간선버스에서 하차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나 지선버스를 이용해 마을까지 이용해야 하는데 장시간 수요응답형 버스를 기다려야 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서 불편을 겪는 점, 또 승강장에 바람막이나 벤치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조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 배차를 늘리고 시민들이 춥고 더운 날씨에도 편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승강장과 환승장의 시설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으며,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분 자유발언
최재현 의원
(모현동, 송학동)

지역 대학과 협력을 통한 익산시 지역사회 위기 극복 정책 제안

최재현 의원은 제249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기업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위기가 우리 지역 대학인 원광대학교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지역소재 대학은 그 지역의 경제, 문화, 복지의 중심으로 인재 양성이라는 역할 그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대학의 존폐는 지역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지역 소멸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공동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는 그 인재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 상생협력추진단에 지역기업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 산업계 간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
한동연 의원
(어양동)

여성공무원의 고위 간부직 진출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한동연 의원은 제244회 임시회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주요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2년 7월 기준 익산시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1,846명 중 51.1%인 944명으로, 4급 이상은 15명 중 단 1명, 5급 이상은 85명 중 19명, 6급은 507명 중 234명, 7급 이하는 1,239명 중 690명으로 전국 지방공무원 현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 여성공무원의 고위 간부직 비율은 현저히 낮고 하위직으로 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같이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많은 주요 보직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도 남성공무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주요 보직에서 근무할 기회를 갖고 그 성과에 따라 5급 이상 관리직에 더 많은 여성공무원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함께 승진과 관련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9. 의원 연구단체 활동

1. 익산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

- ▶ 연구주제 : 예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
- ▶ 구성원 : 김진규 의원(대표), 정영미 의원, 김미선 의원, 신용 의원, 최재현 의원, 양정민 의원, 손진영 의원, 이종선 의원
- ▶ 연구목적
 -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기능 강화
 - 지방정부의 책무성 있는 거버넌스 보장
 -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
- ▶ 활동기간 : 2022. 7. ~ 11.
- ▶ 활동근거 :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2. 익산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

- ▶ 연구주제 :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장단점 분석
- ▶ 구성원 : 조규대 의원(대표), 강경숙 의원, 이종현 의원, 장경호 의원, 오임선 의원, 김순덕 의원, 박철원 의원, 양정민 의원, 소길영 의원, 유재구 의원
- ▶ 연구목적
 - 익산시의 도시현황과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장단점 등을 세심히 분석함으로써 공단 설립과 관련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
- ▶ 활동기간 : 2022. 7. ~ 11.
- ▶ 활동근거 :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3. 익산시의회 여성가족정책연구회

- ▶ 연구주제 : 익산시 여성가족정책 발전방안 마련
- ▶ 구성원 : 한동연 의원(대표), 김미선 의원, 정영미 의원, 김순덕 의원, 송영자 의원, 이종선 의원, 조은희 의원
- ▶ 연구목적
 - 익산시 여성가족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
 -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익산형 여성가족정책 수립·추진으로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위상 재정립
- ▶ 활동기간 : 2022. 8. ~ 11.
- ▶ 활동근거 :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4. 익산시의회 폐교활용방안연구회

- ▶ 연구주제 :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 ▶ 구성원 : 조남석 의원(대표), 조규대 의원, 박종대 의원, 최재현 의원, 손진영 의원, 이종현 의원, 송영자 의원, 소길영 의원, 조은희 의원
- ▶ 연구목적
 - 폐교시설의 활용 사례 파악해 학교의 입지적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
 - 학교주변과 연계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방안을 모색
- ▶ 활동기간 : 2022. 8. ~ 11.
- ▶ 활동근거 :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5. 익산시의회 지역화폐연구회

- ▶ 연구주제 : 익산시 지역화폐(다이로움 카드) 활성화 방안 제시
- ▶ 구성원 : 장경호 의원(대표), 강경숙 의원, 오임선 의원, 박철원 의원, 김경진 의원, 유재구 의원
- ▶ 연구목적
 - 다이로움 카드의 발행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
- ▶ 활동기간 : 2022. 10. ~ 11.
- ▶ 활동근거 :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6. 익산시의회 자전거정책연구회

- ▶ 연구주제 : 익산시 자전거정책 발전방안 마련
- ▶ 구성원 : 김충영 의원(대표), 최종오 의원, 한동연 의원, 박종대 의원
- ▶ 연구목적
 -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제시하여 익산시(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정책을 반영시키고자 함
- ▶ 활동기간 : 2022. 10. ~ 11.
- ▶ 활동근거 :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10. 주요 의정활동

- 1) 본회의 운영현황
- 2) 상임/특별위원회 운영현황
- 3) 시정질문
- 4) 5분 자유발언
- 5) 건의안 및 결의안

1) 본회의 운영현황 의안별 처리현황

구분		총계	처리					보류
			가결			부결	철회	
			소계	원안	수정			
총계		총계225	소계210	원안164	수정46	부결8	철회5	보류2
조례	소계	총계122	소계109	원안72	수정37	부결7	철회4	보류2
	의원 발의	총계58	소계52	원안33	수정19	부결3	철회1	보류2
	위원회 제안	총계2	소계2	원안2				
	시장 제출	총계62	소계55	원안37	수정18	부결4	철회3	
규칙		총계2	소계2	원안2				
예산(결산)		총계22	소계22	원안18	수정4			
동의(승인)		총계58	소계56	원안51	수정5	부결1	철회1	
결의		총계6	소계6	원안6				
건의		총계7	소계7	원안7				
기타		총계8	소계8	원안8				

■ 제243회 임시회

일시	부의안건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제1차 본회의 (2022.7.01.)	1. 의장 선거의 건	의장(최종오)
	2. 제24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 7. 1.~ 2022. 7. 4.(4일간)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장(한동연)
제2차 본회의 (2022.7.04.)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기획행정위원장:장경호 보건복지위원장:오임선 산업건설위원장:김충영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의회운영위원장:김진규

■ 제244회 임시회

일시	부의안건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제1차 본회의 (2022. 7. 13.)	1.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 7. 13.~ 2022. 7. 22.(10일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운영계획 보고의 건(보고-시장)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원:감경숙, 김경진, 손진영, 송영자, 이종현, 조남석, 조은희
	7. 본회의 휴회의 건	
제2차 본회의 (2022. 7. 22)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3.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남석의원 발의(수정가결)
	4.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5.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익산시장(원안채택)
	6.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7.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수정가결)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 건의안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원:한동연, 김진규, 장경호, 오임선, 김충영, 감미선, 조규대

■ 제245회 임시회

일시	부의안건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제1차 본회의 (2022. 7.25.)	1. 제24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 7. 25.~ 2022. 7. 29.(5일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제2차 본회의 (2022. 7.29)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장(수정가결)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장(원안가결)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장(원안가결)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장(원안가결)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익산시장(원안가결)
	6.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반대 대정부 건의안	

■ 제246회 정례회(제1차 정례회)

일시	부의안건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제1차 본회의 (2022. 9. 19.)	1.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2. 9. 19.~ 2022. 10. 7.(19일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제2차 본회의 (2022. 10. 6.)	1. 시정질문의 건	
제3차 본회의 (2022. 10. 7)	1.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3. 익산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구의원 발의(원안가결)
	4.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6.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7.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8.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9.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0.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익산시장(수정가결)
	11.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2.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오임선의원 발의(원안가결)
	13.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5.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계약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6.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17.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대의원 발의(수정가결)
	18.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김경진의원 발의(원안가결)
	19.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익산시장(원안채택)

	20.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공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익산시장(의견 채택)
	2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익산시장(원안가결)
	2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익산시장(원안가결)
	2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4.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25. 익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26.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	

제247회 임시회

일시	부의안건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제1차 본회의 (2022.10.31.)	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 10. 31.~ 2022. 11. 11.(12일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제2차 본회의 (2022.11.11)	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2. 익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3.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4.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5.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6.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7.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남석의원 발의(수정가결)
	8.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9. 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심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1.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2.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3. 옹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4. 보석박물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5.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6.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익산시장(수정가결)
	17.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18.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9.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조남석의원 발의(수정가결)
	20.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남석의원 발의(수정가결)
	21.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	정영미의원 발의(수정가결)
	22.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이종현의원 발의(원안가결)
	23.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4.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5.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27.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충영의원 발의(수정가결)
	28.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남석의원 발의(수정가결)
	29.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원안가결
	30.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31. 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32.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33. 2023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심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34.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익산시장(수정가결)
	35.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익산시장(원안채택)
	36. 청년예산 축소 반대 건의안	

제248회 2차 정례회

일시	부의안건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제1차 본회의 (2022.11.28.)	1. 제248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2. 11. 28.~ 2022. 11. 20.(23일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원안가결)
	8. 본회의 휴회의 건	
제2차 본회의 (2022.12.19)	1. 시정질문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22.12.20)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원안가결)
	2.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장경호의원 발의(원안가결)
	3.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장경숙의원 발의(원안가결)
	4.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	김진규의원 발의(원안가결)
	5.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대의원 발의(원안가결)
	6.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장(수정가결)
	7.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	익산시 장(수정가결)
	8.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9.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10.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11.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철원, 장경호의원 발의 (수정가결)
	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14.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15.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16.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17.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18.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현의원 발의(수정가결)
	19.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20.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21.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김미선의의원 발의(원안가결)
	2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의원 발의(수정가결)
	23.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진의의원 발의(원안가결)
	24.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25.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 장(수정가결)
	26.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27.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28.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2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익산시 장(원안가결)

■ 제249회 임시회

일시	부의안건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제1차 본회의 (2023. 1. 9.)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 1. 9.~ 2023. 1. 18.(10일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제2차 본회의 (2023. 1. 18)	1.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이중선의원 발의(원안가결)
	2.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정영미의원 발의(원안가결)
	3.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중현,강경숙의원 발의 (원안가결)
	4.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익산시장(원안가결)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익산시장(수정가결)
	8.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9.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0. 합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1.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김순덕,김미선,송영자, 이중선의원 발의(원안가결)
	12.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송영자,김미선,김순덕, 이중선,정영미,조은희, 한동연 의원발의(원안가결)
	1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14.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5.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6.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7.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한동연의원 발의(원안가결)
	18.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 제250회 임시회

일시	부의안건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제1차 본회의 (2023. 3. 22.)	1. 제25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 3. 22.~ 2023. 3. 29.(8일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위원:박종대, 김시영, 김용균, 김진성, 손문선, 이장구, 조창구
	4.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제2차 본회의 (2023. 3. 29)	1.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원안가결)
	2.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원안가결)
	3.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숙의원 발의(원안가결)
	4.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호, 강경숙의원 발의 (원안가결)
	5.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이중현의원

		발의(원안가결)
	6.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중현의원 발의(원안가결)
	7.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정영미의원 발의(원안가결)
	8.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박철원의원 발의(수정가결)
	9.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0.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1.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2.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일괄개정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13.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5.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6.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신용의원 발의(원안가결)
	17.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최재현의원 발의(원안가결)
	18.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원, 김순덕,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의원 발의 (수정가결)
	19.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손진영의원 발의(원안가결)
	20.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손진영의원 발의(수정가결)
	21.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중선의원 발의(원안가결)
	22. 익산시 주민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23.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5.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7.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8.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9.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규대의원 발의(원안가결)
	30.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진의원 발의(원안가결)
	31.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32.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조은희의원 발의(수정가결)
	33.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은희의원 발의(원안가결)
	34.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35.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36.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37.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3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일시	부의안건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제1차 본회의 (2023. 5. 22.)	1. 제25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3. 5. 22.~ 2023. 6. 15.(25일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원: 강경숙, 김진규, 박종대, 송영자, 유재구, 조남석, 한동연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제2차 본회의 (2023. 6. 14)	시정질문	
제3차 본회의 (2023. 6. 15)	1.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강경숙의원 발의(원안가결)
	2.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3.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6.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호의원 발의(원안가결)
	8.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정민의원 발의(원안가결)
	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익산시장(수정가결)
	10.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1.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12.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13.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손진영, 김순덕, 박철원,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의원 발의(원안가결)
	14.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	박철원의원 발의(수정가결)
	15.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송영자의원 발의(원안가결)
	16.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김순덕의원 발의(원안가결)
	17.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18.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임선의원 발의(원안가결)
	19.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0.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한동연의원 발의(수정가결)
	21.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익산시장(수정가결)
	22.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3.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원안가결)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익산시장(원안채택)
	25.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익산시장(원안채택)
	26.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익산시장(원안가결)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익산시장(원안가결)
	2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장(수정가결)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31.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	

2) 상임/특별위원회 운영현황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회기	일자	안건명	심사결과
제243회 임시회	2022.07.06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원안가결
제244회 임시회	2022.07.13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원안가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채택의 건	원안가결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제245회 임시회	2022.07.2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2022.07.29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2.09.14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2022.09.19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원안가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2.10.07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제247회 임시회	2022.10.31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 공적심사의 건	-
	2022.11.11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에 관한 협의의 건	원안가결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022.11.28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2022.12.08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협의의 건	원안가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2022.12.20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249회 임시회	2023.01.09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2023.01.18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제250회 임시회	2023.03.22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채택의 건	원안가결
	2023.03.29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2023.05.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원안가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3.06.15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원안가결

기획행정위원회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회기	일자	안건명	심사결과
제244회 임사회	2022.07.2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022.07.27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07.27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2.07.27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	원안가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2022.10.07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10.07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10.07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10.07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2.10.07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10.07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10.07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10.07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10.07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2.10.0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2.10.07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22.10.07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2022.10.0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채 택
제247회 임사회	2022.11.1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2022.11.11	익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022.11.11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2.11.11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11.11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11.11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11.11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2.11.11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2.11.11	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심의안	원안가결
	2022.11.1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2022.11.11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	원안가결
	2022.11.11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22.11.11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22.11.11	보석박물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원안가결
	2022.11.1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원안가결
	2022.11.11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수정가결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022.12.20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원안가결
	2022.12.20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022.12.20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022.12.20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12.20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2.12.20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	수정가결
	2022.12.20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12.20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회기	일자	안건명	심사결과
	2022.12.20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12.20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022.12.20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원안가결
	2022.12.2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2022.12.20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원안가결
	2022.12.20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22.12.20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원안가결
제249회 임사회	2023.01.18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3.01.18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023.01.18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2023.01.18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2023.01.18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3.01.18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01.1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2023.01.18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원안가결
	2023.01.18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23.01.18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원안가결
	2023.01.18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23.01.18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50회 임사회	2023.03.29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03.29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3.03.29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2023.03.29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03.29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3.03.29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수정가결
	2023.03.29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2023.03.29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03.29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03.29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3.03.29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03.2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2023.03.29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원안가결
	2023.03.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채 택
	2023.03.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채 택
제251회 제1차 정례회	2023.06.15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023.06.15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06.15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06.15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06.1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06.15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06.15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06.15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06.1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2023.06.15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원안가결
	2023.06.15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23.06.15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보건복지위원회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회기	일자	안건명	심사결과
제244회 임시회	2022. 7. 15. ~ 7. 2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2022. 7. 19.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제245회 임시회	2022. 7. 25. ~ 7. 2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2022. 9. 21. ~ 9. 2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2. 10. 4.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원안가결
	2022. 9. 3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결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보류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247회 임시회	2022. 11. 2. ~ 11. 8.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2022. 11. 9.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30. ~ 12. 9.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022. 11. 30.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 12. 6.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	원안가결
제249회 임시회	2023. 1. 10. ~ 1. 16.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2023. 1. 17.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스토킨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	원안가결
제250회 임시회	2023. 3. 23.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원안가결
	2023. 3. 24.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결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2023. 5. 24. ~ 6.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3. 6. 9.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원안가결

2023. 6. 2.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회기	일자	안건명	심사결과
제244회 임시회	2022. 7. 19.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채택
		2022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	원안가결
	2022. 7. 21.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45회 임시회	2022. 7. 2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2022. 9. 30.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채택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채택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2022. 10. 4.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채 택
제247회 임시회	2022. 11. 9.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247회 임시회	2022. 11. 9.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원안가결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	원안가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부 결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23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심의안	원안가결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수정가결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채택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7.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22. 12.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2022. 12. 9.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제249회 임시회	2023. 1. 11.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 1. 13.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제250회 임시회	2023. 3. 24.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 3. 27.	익산시 농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수정가결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2023. 6. 7.	익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채택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채택
	2023. 6. 9.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채 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회기	일자	안건별	심사결과
제244회 임시회	2022.07.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조남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이종현 의원)
제245회 임시회	2022.07.27 ~ 2022.07.2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2022.10.0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022.12.12. ~ 2022.12.16.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수정가결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예산안	원안가결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원안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2023.06.12. ~ 2023.06.1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3) 시정질문 Q&A 주요의정활동

구분	소속의원수				의원명
	계	기획행정 위원회	보건복지 위원회	산업건설 위원회	
합계	계16	기획행정 위원회3	보건복지 위원회7	산업건설 위원회6	
제246회 (정례회)	계4	기획행정 위원회1	보건복지 위원회3	산업건설 위원회0	의원명오임선, 조규대, 손진영, 조남석
제248회 (정례회)	계7	기획행정 위원회2	보건복지 위원회2	산업건설 위원회3	의원명이중선, 장경호, 강경숙,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유재구
제251회 (정례회)	계5	기획행정 위원회0	보건복지 위원회2	산업건설 위원회3	의원명박종대, 이중선, 김경진, 손진영, 조남석

【 제246회(제1차 정례회) 】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 문 요 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 명		
1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의의원	답변자 시장	<p>【일괄질문·답변식】</p> <p>○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p> <p>▶ 2020년 보조금 성과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익산시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 졌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p> <p>- 2021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대상사업은 총 296개 사업으로 이 중 미흡과 매우미흡은 총 62건임.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는 올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가급적 예외 사유 를 최소화하고, 지방보조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통 해 지방보조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음</p> <p>○ 민간위탁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 <p>▶ 사무 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화한 것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의회가 비교판단하기 위함이나 집행부가 위탁 동의안을 에누리 없이 마지막 회기에 상정하거나 정해진 기한이 지나 상정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위탁사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도입은 어떤지?</p> <p>- 상당수 관리부서에서 계약 만료일을 감안하여 마지막 의회일정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의회 동의안 부결시 위탁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또한, 사무위탁 절차에 상당한 기간 이 필요함에도 미리 감안하지 못하여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미리 준비 하는 등 사무위탁 처리절차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예정임</p> <p>- 아울러, 민간위탁과 관련된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으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에서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p> <p>▶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감사, 성과평가 실시 등 위탁에 대한 철저한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p> <p>- 우리시에서는 조례개정에 맞추어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2021. 11. 30.) 하였고, 위탁사무관련 체계적인 관 리 절차 및 통일된 기준안을 포함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 관리지</p>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문요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명		
				<p>침」을 개정('21. 12. 8.)하여 전 부서에 안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일부 관리부서에서 작성된 지침 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채 감사 및 성과평가등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주기적인 현황파악 및 공문안내로, 기간내 철저한 감사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p>○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건립 관련 진행사항과 향후계획</p> <p>▶ 국도비 이력 및 이월과정과 국비와 도비가 시비로 편성된 이유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이 지나 사업비를 불용처리 해야 할 상황이 되었으나 치매전담 요양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 판단하였기에 보건복지부에 방문하여 우리시의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고 사업비(국도비)에 대하여 시비로 재편성하여 추진하겠다고 협의하였으며, 시의회 도움으로 2021년 11월 수정예산 심의를 거쳐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음 <p>▶ 임차권, 근저당권 등 문제가 많은 물건임에도 다른 건물 또는 토지를 비교 검토 하지 않은 이유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송동, 삼성동 교회 등 타 건물들을 검토해보았으나 노인요양시설은 건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던 중 민간요양시설을 운영하던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요양시설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리모델링 과정만 거친 후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 운영하기 적합하기에 매입을 추진함 <p>▶ 4층 수직이동의 어려움과 요양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진단 실시여부는 검토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건물은 매입 전 용도가 노인요양시설이었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시설군으로 리모델링 과정만 거친 후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 운영하기 적합함. 안전진단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시에 안전진단 후 구조보강 등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p>▶ 향후 추진계획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건물은 2022년 1월 매입 완료하였으며, 2022년 11월에 해당건물에 설정된 임차권 해지 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음
2	기획행정위원회	조규대의원	답변자 시장	<p>【일괄질문·답변식】</p> <p>○ 황등도서관 신축</p> <p>▶ 황등노인복지관과 도서관은 두 시설을 한 건물에 모아놓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불편이 커 분리운영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 사업으로는 도서관 이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을 통해 도서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므로 관련 부서 협의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p>○ 원광대 부근 국도 23호선과 마한로 7길 교차로의 선형개선</p> <p>▶ 원광대 동문을 지나 북부권으로 진입 시 우회전 차로가 없어 접촉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우회전 차로를 개설하고 나아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들을 전수조사해 선형개량과 교통안전물 설치를 통해 교통안전지수를 향상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교차로 선형개선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자료조사 및 원인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문요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명		
				<p>분석을 통해 「20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7천 1백 5십만원을 포함하여 1억 4천 3백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는 순수한 시설비로 용지매입은 어려우나 용지매입을 포함하여 우회도로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빈발 교차로에 대한 전수조사는 익산 경찰서와 협의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교통안전지수 향상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p>○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시민 여론 파악,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타격이 예측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의 대응계획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9월 부시장을 중심으로 왕궁물류단지 T/F팀을 꾸려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음 - 코스트코 측에 상권영향평가의 법적 기준인 ‘대규모점포 3km 이내’에서 대폭 확장하여 익산시 전체에 대한 상권영향평가를 요청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피해업종과 정도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시킬 예정임 - 또한, 다이로움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상권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음 - 왕궁물류단지 내 코스트코의 입점은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함. 지역 경기는 활성화하되, 소상공인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 지역화폐와 관련된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른 향후 다이로움 카드 사업 추진대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로움은 소비유발 효과, 소상공인의 가격경쟁력 강화, 고물가 충격의 완충작용을 하고있으며, 그 역할은 필수적임. 내년에도 다이로움의 20%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나, 기존방식이 아닌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소비촉진지원금 10%를 5%로 조정하되, 나머지 5%는 다이로움택시, 인구대책 등과 접목하여 정책수당으로 추가 지급함으로써 정책파급효과를 확대하겠음 <p>○ 미륵산 등산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휴식처인 주요 산의 등산로 점검이 시급해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또 미륵산 등산로의 본격적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 현황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는 매년 시민들의 수많은 방문 및 우기철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앞으로도 등산로 전 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음. 또한 미륵산 권역 명품 등산로 조성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을 정비중이며 관련 기관,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추진 중임
3	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의원	답변자 시장	<p>【일괄질문·답변식】</p> <p>○ 금강야적장 생활폐기물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쌓여있는 폐기물은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지, 해당 폐기물 반입 및 관리 등 시설운영에 관한 기준과 지침이 있는지? 그리고 야적장 폐기물 전량 이적처리 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포함한 향후 계획은?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문요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야적장 내 보관중인 폐기물은 불연성 마대, 노면 폐토사, 폐타이어, 슬레이트, 옥장판, 매트리스 등으로 야적장에서 품목별 선별 및 해체 작업 이후, 가연성 폐기물은 우리시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소각처리하고 소각처리할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은 수시로 외부업체를 통해 용역 처리하고 있음 - 금강야적장의 가연성쓰레기 3,000여톤은 작년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중앙동 수해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 등을 불가피하게 야적된 상태로 신재생자원센터 소각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병행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음 <p>○ 주택가, 상가, 골목에 산재한 생활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환경 관리 방안으로서 일자리 연계방안 마련 촉구</p> <p>▶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가와 상가 등 관리되지 못한 곳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환경관리인을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익산시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쓰레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로 인한 주민불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은 2020년부터 설치하여 올해 7개소 설치로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연간 10여개씩 설치해 나갈 계획임. 거점배출시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일반 생활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또는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을 활용한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하겠음 <p>○ 청년들의 주거권 확보 차원으로서의 청아아파트 시설 개선과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촉구</p> <p>▶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아아파트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주거권 확대를 위해 양질의 청년임대주택을 확충해 갈 계획이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15,000천원(국비 50%, 시비50%)으로 소방설비개선, LED등기구·수도계량기·자동출입문 등을 교체하였고, 2022년도 128,000천원(국비 60%, 시비 40%)을 확보하여 건물 외벽 도색 및 옥상 누수방지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녹지환경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세대별 노후화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진행 예정 - 또한, 여름철 침수 및 재해 예방으로 옥상에 통신선을 정비하고 지하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매년 대학생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올해는 익산썸바른주소갯기와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여성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음 - 2022년 10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3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에 응모하였으며, 아파트 특별공급 등 청년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4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의원	답변자 시장	<p>【일문일답식】</p> <p>○ 연무IC 명칭 변경과 하나로 도로에 익산을 상징하는 관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무IC로 진입 전 고속도로 안내표지판에 「익산」을 병기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연무IC를 익산-논산IC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문요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경천 교량 및 주요 지점 4대 성지 홍보 관문 설치는 소요 예산, 관문 디자인 선정·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관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공원에 대한 향후 대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경우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실효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약 300여개의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한 바 있음. 2022년 7월 기준 도시계획시설(도로) 1,350개 중 98%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6개 노선에 대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우리시는 도시지역 도시 외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교통여건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노선의 경우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하겠음 - 또한 도시공원 11개소 중 5개공원(마동·수도산·모인·팔봉(1지구)·소라)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중이며, 6개공원(신흥·배산·무학·춘포·함열·팔봉(2지구))은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토지매입 또는 부지사용 계약 체결 등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일몰제를 대비하여 주민 이용도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매입토록 추진하겠음 ○ 자원화 경축사업 공모 선정기준과 허가문제, 운영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바이오차 사업이 투명하고 사업성 있게 추진되고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의 연간 위탁 우분 처리율은 전체 우분 발생량의 21%이며, 익산시의 우분 위탁 처리 6곳 중 축협에서 5%(1/4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위탁처리업체 중 적은 양을 처리하는 것은 아님 - 우분의 경우 2020년 3월 법 기준 강화(퇴·액비화 기준)로 인해 자체처리 농가들의 퇴비 부숙관리 어려움으로 축분 위탁처리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우농가 825호 중 중소규모의 가축사육 농가(면적 1,920㎡ 이하)는 740여 농가로 90%에 달하여 중소규모 한우농가들의 퇴비사 신·증축, 인·허가 문제 및 교반 장비 부족으로 퇴비 부숙관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실임 - 공동자원화(바이오차) 시설 신규 설치로 연간 우분 발생량 19만 8천톤 중 19%인 3만7천톤을 추가 처리할 수 있어 전체 발생량의 40%(7만9천톤)가 위탁처리 가능하므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어려움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함 - 익산군산축협의 가축분뇨 수거계약 조건 관련해서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함.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음 - 바이오차 공법은 소각이 아닌 산소가 없는 혐기성 상태에서 열분해하는 것으로 무산소 또는 저산소 이므로 공기 송풍이 최소이므로 배기량이 적고 처리장치는 밀폐형으로 열분해로 나오는 기체 또한 연소되어 유해가스 및 분진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할 것임 - 바이오차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비료로 사용했던 통상적인 방법보다 분뇨안정화, 냄새제거, 연료생산 등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문요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명		
1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의의원	답변자 시장	<p>【일괄질문·답변식】</p> <p>○ 지역사회 파크골프 활성화(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만경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p> <p>-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시설관리는 건설과가 담당하고 시설 이용 및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담당. 체육진흥과에서 2023년부터 현장 관리인원 2명을 배치, 현장 예약을 원칙으로 예약 순서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음</p> <p>○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에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p> <p>- 도매시장은 안전점검 C급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현대화사업은 6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120억 정도가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480억은 시비 부담(국비 20%, 용자 50%, 지방비 30%). 현대화사업은 시 재정부담이 크므로 적절한 시기를 찾아야 하며, 현재 도매시장을 충분히 활용한 뒤에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고자 함. 또한, 분야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p> <p>○ 인화동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남부시장 및 구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이 필요한데 이에 관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p> <p>-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방향은 남부권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부지 내 행정타운 용지를 계획(확정단계 아님)하여 통합청사(평화, 인화동)를 신축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신청사 건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수변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읍·면·동 청사 신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음</p>
2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의원	답변자 시장	<p>【일문일답식】</p> <p>○ 익산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대표산업인 ‘식품산업’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집중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은?</p> <p>- 우리시는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4년이면 분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단계 확대 조성을 이번 정부 대선공약과 우리시 공약사업에 포함시키고 전북도, 식품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p> <p>- 최근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통해 푸드테크 기반 미래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新산업단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임</p> <p>-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단순 식품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넘어 견학·전시·체험 등 관광산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계획임</p> <p>-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활성화 및 2단계 확대 조성으로 우리시가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주거·교육·문화의 배후복합도시가 결합한 세계적인 식품산업문화도시(푸드폴리스)로 나아가도록 하겠음</p> <p>○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숙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체류형 관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p>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문요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익산방문의해를 맞이하여 익산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와 숙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익산시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노력중임.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게 숙박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다이로움 카드를 지역화폐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플랫폼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다이로움 개편을 통한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의회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음
3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의원	답변자 시장	<p>【일괄질문·답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세무서 이전에 따라 남중동의 유동인구가 줄고 거리가 활력을 잃은 실정임. 건강증진센터,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등 속히 구청사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익산세무서가 익산세관과 통합한 영등동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남중동 세무서부지 인근지역 상권의 침체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활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함.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청사의 새로운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 수반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던 정책들을 이자 수입으로 대체해 예산을 편성한다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또 세입 이자의 인구증대 연계 방안에 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정책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특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이므로 이자수입을 인구정책 예산에만 직접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그에 상응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 익산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할 때 제5산업단지를 오산·서부권에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최근 10년 이내 조성된 제3·4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한계치에 도달하여 신규 산업입지 수요 대응 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빨리 예측하고 제5산단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함 - 오산·서부권의 경우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계획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약 80~90% 정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많이 포함된 부지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연약지반 개량공사 등으로 조성공사비가 많이 필요하게되어 이후 분양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은 실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필수 불가결한 협의항목에 해당하여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가 과다 편입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입지 부동의 등의 의견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 문 요 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 명		
4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답변자 시장	<p>【일문일답식】</p> <p>○ 3년 후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부동산 패닉 상태가 올 것으로 염려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p> <p>－ 금년 5월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수요, 공급을 면밀히 분석하고 노후주택의 단계별 정비방안 등을 수립 중에 있어, 추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안정된 공동주택 공급 및 재건축, 재개발 등 체계적인 주택 정책을 시행하겠음</p> <p>○ 당초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배산공원이 상징성과 보존가치를 이유로 자체매입으로 전환된 후 매입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함. 배산공원이 영구적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자체매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p> <p>－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배산공원의 경우 연일정씨 문중 소유토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하고, 기타 사유지의 경우 단계적 매입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배산공원토지 중 개인 사유지부터 매입 검토 후 편의시설 설치하겠음</p> <p>○ 익산역 근처에서 영업 중인 성매매집결지가 도시이미지를 추락시키며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성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한 도시환경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p> <p>－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시설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없는바, 민간개발사업(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통하여 정비를 유도하고자 함</p>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문요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명		
5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의원	답변자 시장	<p>【일괄질문·답변식】</p> <p>○ 영농폐기물의 처리가 미흡해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토양매립 또는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으로 선진형 수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p> <p>- 영농폐기물을 상시 수거할 수 있는 먼 단위별로 대규모 집하장 설치 및 재활용 비닐 수익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타 시·군 운영사례와 타당성, 실용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p> <p>○ 익산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p> <p>- 고도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을 위하여 ‘22. 7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백제금마저 전통문화복합체험 단지조성”을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반영, 기본계획 변경 고시됨(‘22.8)에 따라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p> <p>- 미륵사지 관광지 부지 내에 상업시설 3개소가 조성될 계획이며, 관광지 주변에는 카페 및 기타 음식점 등이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앞으로도 익산미륵사지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지 주변에 편익시설(상업시설) 추가 조성하겠음</p>
6	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의원	답변자 시장	<p>【일문일답식】</p> <p>○ 익산시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과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장애인 관련 공약은?</p> <p>- 우리시는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특히 노력하고 있으며 익산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국비를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p> <p>○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고 대물림맛집, 모범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p> <p>- 장애인콜택시는 ’23년 본예산에 480백만원을 편성하여 신규 10대를 도입하여 법정대수 40대를 모두 충족시킬 예정이며, 부족한 운영비(10대분 3억원)는 추경에 확보하겠음</p> <p>- 바우처택시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운행 시 이용자가 많은 출퇴근 시간 때에는 택시들의 콜 거부로 인해 불편 민원이 발생하며, 부정승차로 인해 요금 정산의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우려됨.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전라북도는 임차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도입을 검토하겠음</p> <p>- 법 개정 이전에 신축 증·개축 된 음식점에 대하여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p>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문요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명		
				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음식점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대물림맛집 등 익산 대표음식점에 선도적으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증음식점 선정평가 시 장애인 경사로 설치 업소에 가점을 주어 우대 선정 예정
7	산업건설위원회	유재구의원	답변자 시장	<p>【일괄질문·답변식】</p> <p>○ 사용이 종료된 금강매립장이 폐쇄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금강야적장에 중앙동 침수 피해와 코로나로 인해 급증한 폐기물들이 임시 야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p> <p>- 금강매립장은 2021년 2월 28일 사용종료신고(전북도지사) 하였으며, 사용종료 신고일부터 30년간 매립장 시설 및 오염물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정기검사 등을 받는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임</p> <p>- 금강매립장 토지활용계획(체육시설 등 설치)은 환경기초시설(폐수종말처리장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이용 불편 등이 예상되며, 향후 매립장의 안정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p> <p>- 향후 야적장 운영 시 악취, 미관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수적인 용도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p>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문요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명		
1	산업건설위원회	박종대의원	답변자 시장	<p>【일괄질문·답변식】</p> <p>○ 제4일반산업단지 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주변 악취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익산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센터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p> <p>-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곳은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며 산단에 입주한 총 31개의 입주 기업 중 21개 기업이 악취배출사업장임. 관련 업체와 협의를 해서 환경관리전문가를 채용했음.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음</p> <p>○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준해 1년 혹은 6개월 단위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80% 혹은 9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이 견해는?</p> <p>-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통해 지원금리 인상 등 사업 혜택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음</p> <p>-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하였으며 추후 변경승인 후 유관기관(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세부업무협약을 변경하여 하반기부터 확대 방안을 적용할 계획임</p> <p>○ 익산시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이 장기간 중지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은?</p> <p>- 최초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4개 고도지구에 대하여 각 구역별 여건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분석 및 재검토하고자 2021년 10월부터 고도지구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동일원(16호) 고도지구 주변 공장 이전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용역을 중지('22.7.) 하고 있는 상황임</p> <p>- 팔봉동(15호), 부송팔봉동(18호), 금강동 일원(19호) 고도지구는 재검토 결과 현재 고도지구 지정목적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있음. 한편, 마동 일원(16호) 고도지구는 하이트공장을 에워싸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이전과 병행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장이전이 불가할 경우 마동공원특례사업 등 현지어건을 고려하여 고도지구 변경 관련 용역을 재개 할 계획임</p> <p>○ 국화축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신흥공원, 신흥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추진 주체나 축제 장소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p> <p>-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우리시는 농업기술센터 한 개의 계에서 전담하고 있음.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주를 통해 추진 주체를 이원화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음</p> <p>- 전시성·단발성 분화형태를 보완하기 위해 축제장을 신흥공원과 신흥저수지로 확대, 변경해 식재형 연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화는 가을에 한번 피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화분이나 구조물 대신 자연미를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음</p> <p>- 우리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원수의 수질저하, 가뭄시 용수 수급 어려움. 노후된 정수시설 개선에 막대한 예산투입(2천억원) 등으로 광역상수도 전환을 2040년</p>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문요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명		
				까지 완료하는 장기적 계획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음. 시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광역상수도 전환 시점을 결정할 예정임
2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의의원	답변자 시장	<p>【일괄질문-답변식】</p> <p>○ 지난 2012년부터 기반조성에 힘쓴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닭 특화거리’ 또한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익산역 앞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p> <p>- 다산네트웍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R&D센터 분소를 구도심에 유치하고 구 경찰서 공유지 개발부지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홀로그램 기업, IT기업 등을 입주시키는 등 청년몰, 청년시청과 연계해 청년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익산역을 이용하는 철도관광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거리를 비롯해 슀리 근대역사문화지구, 구시장, 남부시장, 춘포 근대역사문화 유산들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익산역 광장에 아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상 중임</p> <p>- ‘닭 특화거리’의 경우 하림 계열사 엔바이콘이 7월에 상점을 오픈해 닭 요리를 선보이면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이후 익산시에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해주고 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서 요리지도를 하는 등 여건을 조성해주고 본격적으로 닭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함</p> <p>○ 구시장 지중화 사업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급하며 상인들도 강력히 요구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p> <p>- 지중화기기 설치 부지에 대하여는 구시장 지중화사업 구간 내 구시장 및 남부시장 주차장이 있어 설치 부지로 검토 중이며 지중화사업 선정 시 헌전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또한 지중화 사업 선정시 해당 구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음</p> <p>○ 관내 양봉농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꿀벌 약 2억 마리가 집단폐사해 농가에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p> <p>- 현재 양봉피해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우리시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향후 국가 차원의 대응에 맞추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음. 추가로 양봉농가 사육실태 및 피해현황 전수조사 실시 후 금년 하반기 총사업비 3억 4천 2백만원(도비 61,560, 시비 143,640, 자부담 136,800)을 추가 편성하여 피해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음. 앞으로도 피해농가에 대해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음</p>
3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진의의원	답변자 시장	<p>【일문일답식】</p> <p>○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 촉구</p> <p>▶ 정문 출입구 버스 승하차장 옆 경계석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되었고, 146개 계단 중 약 60여 개의 계단이 설치기준과 다르게 완공됨. 설계도면 확인 후 준공검사를 하고 인증은 어떻게 받았는지?</p> <p>- 경계턱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해서 BF인증에서 예비</p>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문요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명		
				<p>인증이 통과됐고, 본 인증을 위한 사전현장조사도 통과됐음. 기준에 맞지 않는 계단들은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있음</p> <p>▶현행 「도로교통법」 상 차량은 우측으로 통행하는데 반대비 체육관은 좌측통행 방식으로 승하차장이 표시되어 있는데?</p> <p>- BF인증기관의 현장실사 당시 지적은 없었지만,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있는지 운영상황을 지켜보라고 필요하다면 교체하도록 하겠음</p> <p>▶장애인주차장에서 주출입문까지 장애인 안내점자블록이 미설치되어 있으며 실내 수중치료실 역시 안내점자블록과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p> <p>- BF인증기준에 필요한 장소에는 전부 설치되었음. 다만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음</p> <p>▶펜싱경기장에서 경기가 양쪽 레인에서 진행되는데 한쪽 면만 스코어판을 볼 수가 있고, 다른 한면은 표시조차되지 않는데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누락됐는지?</p> <p>- 사진에 있는 스코어판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사용하던 것이고 양방향 계기판은 구매를 했는데 지주 2개 설치 문제로 지연됐음. 지주 2개가 마무리되면 설치토록 하겠음</p> <p>▶실내 일부 출입구가 여닫이 방식이어서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장애인주차장 중 한 면이 기울어져 있자 일반주차장으로 변경을 해버렸는데?</p> <p>- 여닫이로 되어 있는 곳은 상시 개방하는 곳인데 자동출입문을 설치하려면 벽면 두께가 넓어지고 설계가 달라져 여닫이문을 설치했음. 현재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휠체어 출입 시 불편한 점은 향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음. 주차장의 경우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주차면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재시공보다는 일반주차장으로 전환이 낫다고 판단되어 인증기관의 동의를 거쳐 전환했음</p> <p>▶수중치료실에 관련 법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개관 후 6개월이 경과되도록 안전요원이 배치 되지 않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미배치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p> <p>- 수중안전요원을 채용하기 위해 수차례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음. 수영강사로 전환해서 채용하려고 계획 중이며 추경에 반영되면 2명을 채용하도록 하겠음</p>
4	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의원	답변자 시장	<p>【일문일답식】</p> <p>○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도시개발은 도시의 미래와 직결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서 문제점이 나왔으면 충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등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p> <p>- 현재는 기본구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단계로 사업이 보다 구체화된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며, 사업 계획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p> <p>○ 개발방식을 공영개발로 정했다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추진방향은?</p> <p>- 시 자체 개발방식에서 민관합동개발(SPC)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 추</p>

순서	질문 의원		답변자	질문요지 【질문답변 방법】
	위원회	성명		
				<p>진함으로써 시비 부담이 줄어 재정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며 또한 민간 개발 방식보다 개발계획의 공공성 확보가 용이함.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에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보완해 나가겠음</p> <p>○ 최근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으로 이러한 아파트 공급과잉은 미분양사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인구 유입의 불확실성과 도심 공동화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약 7,0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과도한 계획이 아닌지?</p> <p>- 현재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침체 및 부동산 시장 약화 등의 경기침체 요인 등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되는 향후 3년이나 4년 후에는 개발 여건이 많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됨</p> <p>○ 만경강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의 아파트 개발방식 말고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p> <p>-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 시에 생태문화적 가치 등 환경저해 요소에 대한 환경보전 방안을 수립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p>
5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의원	답변자 시장	<p>【일문일답식】</p> <p>○ 5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익산지역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173농가, 97.7ha의 침수피해를 입었음.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지역별 피해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p> <p>- NDMS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시설물 피해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업피해의 경우는 피해면적만을 입력하게 됨. 현재 행안부에서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자연재난부터는 피해액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p> <p>○ 국가하천은 정부에서 관리하지만 지방하천 27개소이나 소하천 62개소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하천준설에 어려움이 있음. 재해방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p> <p>-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매칭비율이 있음. 그 매칭비율 대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순수 시비 사업도 검토해보겠음</p> <p>○ 현재 익산시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로 버는 10%, 버 이외 농작물은 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p> <p>- 농가 자부담 20%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 독려를 위해 2021년 농협 조합장 회의를 통해서 행정과 농협이 지원하는 것에 합의를 했음. 그 결과 행정에서 추가로 5~10% 지원을 하고, 일부 농협도 지원을 하고 있음. 농지면적 기준 전년대비 가입율이 4% 증대 되었음. 작년부터 추가지원을 시작하여 1~2년 운영해보고 성과를 판단하여 검토하겠음</p>

4) 5분자유발언 발언현황

구 분	소 속 의 원 수				의 원 명
	계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합 계	계 65	기획행정위원회20	보건복지위원회23	산업건설위원회22	
제244회 (임시회)	계 6	기획행정위원회1	보건복지위원회1	산업건설위원회4	박종대, 김경진, 손진영 이중선, 한동연, 강경숙
제245회 (임시회)	계 6	기획행정위원회3	보건복지위원회2	산업건설위원회1	장경호, 김충영, 조남석, 박철원, 이종현, 김진규
제246회 (정례회)	계 10	기획행정위원회3	보건복지위원회3	산업건설위원회4	강경숙, 정영미, 오임선, 최재현, 손진영, 유재구, 박종대, 소길영, 이중선, 김미선
제247회 (임시회)	계 11	기획행정위원회2	보건복지위원회5	산업건설위원회4	김순덕, 송영자, 김충영 조은희, 김경진, 강경숙, 장경호, 이중선, 조남석, 손진영, 최재현
제248회 (정례회)	계 8	기획행정위원회4	보건복지위원회2	산업건설위원회2	조규대, 박철원, 김미선, 한동연, 조은희, 신용, 김진규, 오임선
제249회 (임시회)	계 6	기획행정위원회1	보건복지위원회4	산업건설위원회1	한동연, 손진영, 송영자 최재현, 장경호, 조남석
제250회 (임시회)	계 8	기획행정위원회3	보건복지위원회3	산업건설위원회2	오임선, 김순덕, 이중선, 김미선, 김준규, 최재현, 박종대, 정영미
제251회 (정례회)	계 10	기획행정위원회3	보건복지위원회3	산업건설위원회4	이중선, 강경숙, 조은희, 최재현, 김순덕, 송영자, 이종현, 조규대, 소길영, 한동연

5분 자유발언 현황

연번	회기	연월일	발언의원	내 용
1	회기 244회	연월일 2022.07.13	발언의원 박종대	내 용 주민자치센터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
2	회기 244회	연월일 2022.07.13	발언의원 김경진	내 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회기 244회	연월일 2022.07.13	발언의원 손진영	내 용 익산시의회 원구성 및 임시회 일정 변경에 따른 문제에 대한 발언
4	회기 244회	연월일 2022.07.22	발언의원 이중선	내 용 우리 시 노인복지 사각지대인 미등록경로당의 현실과 등록경로당과의 지원 차이를 전달하면서 미등록경로당의 지원 확대 필요성 촉구
5	회기 244회	연월일 2022.07.22	발언의원 한동연	내 용 우리 시 여성공무원의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주요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제도의 개선촉구
6	회기 244회	연월일 2022.07.22	발언의원 강경숙	내 용 익산시 2022년도 인구감소 현상 및 인구유입 방안
7	회기 245회	연월일 2022.07.25	발언의원 장경호	내 용 구시장 시설현대화 위한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과 남부시장 광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8	회기 245회	연월일 2022.07.25	발언의원 김충영	내 용 시의회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안건(예산안) 제출시기 준수 등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노력촉구
9	회기 245회	연월일 2022.07.25	발언의원 조남석	내 용 용안면 기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추진절차 상 문제점
10	회기 245회	연월일 2022.07.29	발언의원 박철원	내 용 익산시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문제점
11	회기 245회	연월일 2022.07.29	발언의원 이종현	내 용 쿠팡 물류센터 유치를 위한 익산시의 발빠른 대처로 물류 허브 도시로의 도약에 대해
12	회기 245회	연월일 2022.07.29	발언의원 김진규	내 용 음식문화의 거리 상태 파악, 향후 관리 방안 및 주차의 건
13	회기 246회	연월일 2022.09.19	발언의원 강경숙	내 용 신청사 주차타워 건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4	회기 246회	연월일 2022.09.19	발언의원 정영미	내 용 익산시 아동 보호 시설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진출을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에 대해
15	회기 246회	연월일 2022.09.19	발언의원 오임선	내 용 익산시 장례식장 다화용기 지원 및 사용을 위한 정책 추진 제안
16	회기 246회	연월일 2022.09.19	발언의원 최재현	내 용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중단 위기에 따른 익산시 다이로움 지속대책촉구에 대해

17	회기 246회	연월일 2022.09.19	발언의원 손진영	내 용 익산시 들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제안
18	회기 246회	연월일 2022.09.19	발언의원 유재구	내 용 교통 약자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안보를 고려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와 유자문보에 대한 문제점과민보방안 촉구
19	회기 246회	연월일 2022.10.07	발언의원 박종대	내 용 배산체육공원 내 야외음악당의 치광막 설치 필요성
20	회기 246회	연월일 2022.10.07	발언의원 소길영	내 용 동부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 건의
21	회기 246회	연월일 2022.10.07	발언의원 이중선	내 용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지정 추진 촉구
22	회기 246회	연월일 2022.10.07	발언의원 김미선	내 용 익산시 관내 업체 우선 발주로 참여된 지역경제 활성화
23	회기 247회	연월일 2022.10.31	발언의원 김순덕	내 용 성공적인 고령친화마을로 운영을 위한 익산시의 숙고와 전략 마련 촉구
24	회기 247회	연월일 2022.10.31	발언의원 송영자	내 용 한센인 전문요양병원 건립 필요성
25	회기 247회	연월일 2022.10.31	발언의원 김충영	내 용 평화동·인화동 공구거리 활성화 방안 제안
26	회기 247회	연월일 2022.10.31	발언의원 조은희	내 용 계절 외국인 근로자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27	회기 247회	연월일 2022.10.31	발언의원 김경진	내 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의 탄력적 운영 제안
28	회기 247회	연월일 2022.11.11	발언의원 강경숙	내 용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
29	회기 247회	연월일 2022.11.11	발언의원 장경호	내 용 디이로움 택시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30	회기 247회	연월일 2022.11.11	발언의원 이중선	내 용 익산시 금융복지사업 확대 촉구
31	회기 247회	연월일 2022.11.11	발언의원 조남석	내 용 소외된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마련 제안
32	회기 247회	연월일 2022.11.11	발언의원 손진영	내 용 토종종자 보급과 보존을 위한 토종육묘장 설립을 제안하며
33	회기 247회	연월일 2022.11.11	발언의원 최재현	내 용 구 국도 23호선(무양로) 주택 인접구간 소음 저감방안 촉구
34	회기 248회	연월일 2022.11.28	발언의원 조규대	내 용 황금로(황등 1교 ~ 아미정원 ~ 4산단 화전교차로) 확장 필요성
35	회기 248회	연월일 2022.11.28	발언의원 박철원	내 용 익산시 관외 대학생 주거비 지원정책 필요성
36	회기 248회	연월일 2022.11.28	발언의원 김미선	내 용 익산시 지방채 채납 결손처분 철저한 장수 나서야
37	회기 248회	연월일 2022.11.28	발언의원 한동연	내 용 익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38	회기 248회	연월일 2022.11.28	발언의원 조은희	내 용 사내버스 지·간선제 문제점 및 대책마련 촉구
39	회기 248회	연월일 2022.11.28	발언의원 신용	내 용 고독사 취약 1인가구 관련 유기동물 입양사업 및 입양지원센터 유치에 관하여
40	회기 248회	연월일 2022.12.20	발언의원 김진규	내 용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로 신규일자리 창출과 여성들의 사회진출 도모
41	회기 248회	연월일 2022.12.20	발언의원 오임선	내 용 익산시 어양동 송전선로 지중화 및 송전탑 철거사업에 대해

42	회기 249회	연월일 2023.01.09	발언의원 한동연	내용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서
43	회기 249회	연월일 2023.01.09	발언의원 손진영	내용 익산시 '초단시간 노동자' 의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를 제안하며
44	회기 249회	연월일 2023.01.09	발언의원 송영자	내용 대설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45	회기 249회	연월일 2023.01.18	발언의원 최재현	내용 지역 대학과 협력을 통한 익산시 지역사회 위기 극복 정책 제언
46	회기 249회	연월일 2023.01.18	발언의원 장경호	내용 공공배달앱 도입의 필요성
47	회기 249회	연월일 2023.01.18	발언의원 조남석	내용 농촌지역 시내버스 이용편의 및 활성화 정책 제언
48	회기 250회	연월일 2023.03.22	발언의원 오임선	내용 지방 민간자본유치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유치전담조직의 필요성
49	회기 250회	연월일 2023.03.22	발언의원 김순덕	내용 목욕탕이 없는 읍면지역에 작은목욕탕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50	회기 250회	연월일 2023.03.22	발언의원 이중선	내용 남부권 농촌관광 활성화
51	회기 250회	연월일 2023.03.22	발언의원 김미선	내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한 판매 기회 제공 마련
52	회기 250회	연월일 2023.03.29	발언의원 김진규	내용 산후조리원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53	회기 250회	연월일 2023.03.29	발언의원 최재현	내용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도로개설 촉구
54	회기 250회	연월일 2023.03.29	발언의원 박종대	내용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익산시 유치 촉구
55	회기 250회	연월일 2023.03.29	발언의원 정영미	내용 부송4지구 택지개발, 인근주민 환경피해 선제적 대응과 학교건립부지주민의견 담아야
56	회기 251회	연월일 2023.05.22	발언의원 이중선	내용 우리 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촉구
57	회기 251회	연월일 2023.05.22	발언의원 강경숙	내용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필요성
58	회기 251회	연월일 2023.05.22	발언의원 조은희	내용 북부청사 주차 문제 대책마련 촉구
59	회기 251회	연월일 2023.05.22	발언의원 최재현	내용 학교 복합시설 건립
60	회기 251회	연월일 2023.06.15	발언의원 김순덕	내용 팔봉군경묘지 및 공설묘지를 찾는 추모객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 제안
61	회기 251회	연월일 2023.06.15	발언의원 송영자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촉구
62	회기 251회	연월일 2023.06.15	발언의원 이중현	내용 쿠팡 이어 코스트코까지 '유통공통' 입점 위한 행정력 집중
63	회기 251회	연월일 2023.06.15	발언의원 조규대	내용 익산시 망성면 균형발전을 위한 체육공원 건립 촉구
64	회기 251회	연월일 2023.06.15	발언의원 소길영	내용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65	회기 251회	연월일 2023.06.15	발언의원 한동연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관련(어양 e편한세상 정문 주변) 익산시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로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의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 1천개를 없애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란 일정한 소득기준을 통과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환경미화, 도시락배달, 스쿨존 교통지원 등의 공익활동에 월 평균 30시간을 참여하고 27만원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이다.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 중 70대가 37만 7천명, 80대가 18만 3천명으로 참여자의 90% 이상이 70대 이상이며, 전체의 94%가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상황으로, 이들이 민간의 노인 일자리로 흡수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20년 노인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74%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 중으로 파악되고 있어,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축소는 이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라북도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축소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축소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을 직시하라.

하나, 정부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2022년 10월 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문

전국적인 농업단체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신청 안건을 의결하였다.

정부의 CPTPP 가입은 우리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전 세계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량의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기존에 체결된 FTA 외에도 서명·타결 단계에 있는 FTA가 4건, 협상 중인 FTA는 12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식량자급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농업약소국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러·우 전쟁에서 확인되듯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는 시점에, 역설적이게도 우리 정부는 농업인과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없이 무리하게 CPTPP 가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CPTPP에 가입된 11개의 국가(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중 다수가 농업의 수출국으로, 개방화에 취약한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원산지 누적 기준으로 CPTPP 회원국 중 수출국의 원재료(협정국간 조달된 원재료)가 모두 수입국의 국산 재료로 간주 되어, 원재료 활용 제품 수출 시 회원국 간 특혜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값싼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고추와 콩을 수입해서 고추장을 담근 뒤 한국산이라 원산지를 표기해도 된다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누적 기준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요구, 중국의 가입 등 각종 변수로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CPTPP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율은 농산물 96%, 수산물 100%로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 72%와 비교하면 전면 개방 수준과 다를 바 없다. 이렇듯 휘몰아치는 자유무역의 물결에 따른 폭풍 같은 변화에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어, 그나마 버티고 있던 농업기반마저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식량주권의 확보와 생존권 보장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결사반대를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내 농업 말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 없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라.

2022년 10월 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문

2022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부처의 명칭에서 ‘여성’을 지우고 그 기능마저 축소, 격하시키면서 ‘여성 보호 강화’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형용모순이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연일 수 많은 여성들이 일상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다. 사랑해서, 사랑이 변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그냥 여자라서 죽었다는 젠더 폭력 기사가 뉴스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스토킹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이처럼 당대를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듯이 지금 한국 사회는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스토킹 범죄 · 디지털 성폭력 · 교제살인 등 세대를 불문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성폭력과 구조적 성차별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단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0.2%에 불과했다. 그나마 예산의 약 60%는 가족돌봄 정책, 20%는 청소년 보호사업에 사용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 권력형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성과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 예산은 단지 7.9%를 차지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 중심 정책을 남녀와 세대 모두가 평등한 양성평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여성정책에 대한 편협하고 오도된 관점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겠다는 발상 또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봤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헌법 34조 3항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위기 때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와 국민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 예산은 더욱 강화되고 집중되어야 한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여성가족부의 권한 강화와 예산 확대는 못할망정 국민간 갈등을 부추기려는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세대 간, 성별 간 젠더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국면전환용 정치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세대와 성별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말고 강화하라!

더욱 강력한 성평등부처가 필요하다!

2022년 10월 31일

익 산 시 의 회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91
----------	----

발의연월일 : 2023. 5. 15.

발의자 : 박종대의원

1. 주 문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우리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명 칭 :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7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5)
- 활동기간 : 2023. 5. ~ 2024. 4. 30.
- 활동범위 : 전북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관련 사무 일체

2. 제안 이유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별로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는 상황으로
- 우리시가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와 함께, 익산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내실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함

3. 활동 계획

- 전북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 내 파급효과 분석
- 중앙부처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동향 파악
- 공공기관 및 관련 주무부처 등 방문 활동
- 정치권 등과 연계한 유치활동 전개
- 타 지자체 유치동향 파악 및 대응 등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문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이 방사성 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됐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약 132만톤으로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오염수는 지하와 바다로 흘러들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2년 실시한 일본내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 세슘이 수산물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다.

2022년 1월 후쿠시마 현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 300Bq/kg(베크렐 퍼 키로그램)과 1400Bq/kg(베크렐 퍼 키로그램)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후쿠시마 포함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물질 검사 건수는 2018년 17만 1천 건에서 2022년 3만 6천 건으로 매년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출률은 2018년 1.83%에서 2022년 4천 1백건으로 11.5%로 급증했다.

특히 2022년 수산물 수입허용지역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은 1,326건 중 11건으로 0.83%이나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 현은 11,753건중 686건으로 5.83%에 달해 약 7배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해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수산물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후쿠시마 및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하던 국가들이 점차 규제를 풀고 있으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 대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도 대한민국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모두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라 !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밥상 오염을 일으키는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확대하라 !

하나. 정부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의사를 천명해라 !

2023년 06월 15일

익 산 시 의 회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권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화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가 익산시에 건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심리와 정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거주형 치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는 수도권역의 「국립 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경상권역의 「국립 대구 청소년디딤센터」 단 두곳 뿐입니다. 호남권과 충청권 청소년이 기존 센터까지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기에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지역 선정이 익산시로 결정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익산시는 호남을 넘어 충청권 청소년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는 기존 센터 이용에 소외되어 온 지역 청소년을 최대한 포괄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가져야 합니다. 익산시는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 충청전라지역 전체를 잇는 철도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더불어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신설되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도로망까지 사통팔달로 갖추고 있어 명실공히 최고교통도시로 1시간 이내 도달인구가 약 800만명에 이르고 있어 지리적 최적지임이 틀림없습니다.

둘째, 익산시는 청소년 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한방이 접목된 명상숲길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이 조성될 예정이며,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4대 종교의 성지'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 30만 이하 도시 가운데 종합대학을 가진 유일한 도시로서 부속대학교병원은 전북지역 유일의 권역외상센터로 교육과 의료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음악장, 푸드파크, 교도소체험관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연계가능한 특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북 청소년들은 전국에서 가장 위기상태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전북지역 청소년 가운데 14.6%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교육청과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도 청소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 인지도가 전북은 63.2%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처럼 전북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이 심히 우려가 되는 수준이므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설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서비스 자원 배분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입지선정이 필요합니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지역낙후도는 36위로, 인구 25만 이상 지자체가 45개라는 것을 감안하면 익산시는 여전히 불균형적 지역발전 상태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이라는 지방도시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국립 시설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모든 익산시민의 염원을 모아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의 익산시 유치를 열렬히 지지하며 의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의 익산시 유치를 적극 건의 드립니다.

2022년 7월 22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반대”

대 정 부 건 의 안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위기를 한층더 가속화시키고, 지방소멸 뿐만 아니라 국가위기를 재촉하는 정책으로 반도체 산업은 반드시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돼야 할 것을 익산시의회는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잇달아 21일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수도권의 반도체사업 국비 지원과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 정원이 약 4,000명이 늘어나게 되어 젊은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이고 수도권에 용적률 상향과 장시간 노동 허용으로 현재 수도권 21개의 반도체 단지가 3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원미달 사태로 구조조정을 강행해 왔습니다.

우리 익산시만 해도 2004년 개설하여 반도체 신기술 개발에 일조했던 원광대학교가 정원 미달로 인하여 2018년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를 폐과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정치·경제·문화력의 수도권 집중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반도체 정책으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은 지방보다 심각한 고물가, 고유가, 고용불안 등에 직면하여 결혼기피와, 저출산으로 국가의 인구는 극단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와 같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은 필연적이나,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수도권으로 일자리, 교육, 문화의 쏠림을 지역으로 횡적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금번 수도권 반도체 육성정책을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의 존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방대학과 나아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지방을 우선으로 한 반도체 산업육성정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반도체 학과 정원을 지역대학 중심으로 양성하고 수도권 반도체 산업 규제완화 방침의 철회를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비수도권에 반도체 산업 지역거점을 두어 지역별로 균형 있는 인프라 확보를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 반도체 산업육성 방안을 재수립 할 것을 건의한다.

2022년 7월 29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최근 모든 식탁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으나 유일하게 쌀값만이 나홀로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산지 쌀값은 작년 이맘때보다 25% 가량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작년 수확기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폭락하는 반면, 비료대·농약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농촌경제가 파탄나지 않을까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8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7만 88원으로 지난해 10월 최고 가격이던 22만 7,212원 보다 5만 7,124원이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21만원선을 유지하던 쌀값은 생산량과 재고량 증가로 올해 초부터 급락하고 있습니다.

쌀값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쌀 27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한 데 이어 지난 7월 10만톤에 대해 추가 격리에 나섰지만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쌓여 있는 재고쌀은 지난달 기준 42만 8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3만 7천 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벼 생육상황을 살펴봤을 때 쌀 재고에 올해 수확분까지 더하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매우 큼니다.

정부가 쌀값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이 큰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그동안 정부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와 느장 대응이 지속된다면 쌀값 폭락과 더불어 농촌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쌀값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선제적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생산량 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 해결을 위해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효적인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2022. 9. 19.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익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한정할 정도로 쓰임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에는 발행액과 정부 지원 모두 대폭 삭감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해온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전체 지역화폐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1조522억 원에서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내년에는 0원이 된다.

일선 지자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발행 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작 경제회복 필요성이 더 커지는 내년에 발행 규모를 삭감하는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권을 말한다.

또한 전국 10개 광역 자치단체와 220여 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자체 발행하는 화폐를 뜻하는데 지역 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시 10%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시민단체가 지역화폐 실험을 하면서 첫 선을 보인 뒤 지자체에서도 확산됐고, 지난해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으로 인해 발행액은 2019년 2조3,000억원, 2020년 9조 6,000억원, 2021년 20조 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밝힌 예산 삭감 사유는 지역사랑 상품권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기 때문이고,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집중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며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로 75조 원이 편성됐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1조 원가량의 재원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사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이 재원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를 조정해 선택하면 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도 경기 침체에 들어섰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 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는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의 기획재정부 논리를 동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생상품 최종 공급자인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일명 ‘3고’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도와주고 더 살려줘야 할 판에 하고 있는 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만만 안겨주는 격이다.

엔드코로나에 가까이 온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단순한 지역화폐의 개념이 아닌 좀 더 발전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 무조건 없애고 본다는 것은 옳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는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하나, 지역화폐의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 하나, 정부의 지역화폐 무용론은 지역 격차 문제를 부추기는 수순이다.

○ 하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며,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2022년 10월 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청년예산 축소 반대 건의문

정부의 청년예산 축소에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올해 대비 5.2%가량 증가한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6년간 최저 증가율로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며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삭감하였다.

또한, 정부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오히려 법인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줄여, 줄어든 재정수입을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축소로 상쇄시키려 하고 있다.

축소된 수많은 예산 중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첫째, 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의 꿈을 좌절시켰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기존 1조 39억원에서 6,375억원으로 약 51% 축소하였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의 자산형성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장기근속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정책이었다.

기존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 지원 대상은 1만 5000명으로 올해 예산안의 7만명에 비해 5만 5000명이 줄어 1년 새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5분의 1로 대폭 감소하여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초기 자산 형성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었다.

둘째, 정부는 청년고용의 꿈을 좌절시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9,952억원에서 2,293억원으로 약 75% 축소하였으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은 4,959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약 90% 축소하였다. 두 정책 모두 청년의 고용 확대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예산으로 청년과 사업주 모두 큰 도움을 받고 있던 정책이었으나, 예산축소로 사업주는 청년고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청년은 취업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셋째, 정부는 청년들과의 약속도 어겼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겠다고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공약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 청년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지원 기간과 규모가 모두 줄었다. 지원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지원 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정부는 1억원을 모을 수 있다고 희망을 품었던 청년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청년예산 축소는 정부가 현재 추진되고 있던 청년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축소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건전재정, 긴축재정이라는 명목 하에 축소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부 예산안의 청년예산 축소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청년예산 증액에 대하여 적극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청년정책 공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발굴하라!

하나, 정부는 예산안에서 감액된 청년정책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2022년 11월 11일

익 산 시 의 회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과 새일미 2개 품종을 추가하고, 2025년부터는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와 퇴출 대상 기준에 대한 미비한 근거에 농민들이 반발하였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9일 발표한 쌀 적정 생산대책을 통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신동진 벼를 제외하는 시기를 2026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민들과 품종 전환에 대한 단계적인 논의과정은 생략하고,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 벼를 매입 품종에서 제외하여 전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품종인 참동진 벼를 권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홍보자료에 따르면, 참동진 벼의 수확량은 10a당 540kg으로 10a당 536kg인 신동진벼보다 많다. 이는 신동진 벼의 수확량이 많아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가 신동진 벼보다 더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권장하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신동진 벼는 1999년 농촌진흥청이 390억 원가량 들여 개발한 품종으로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소비자의 신뢰가 쌓인 덕분에 신동진 벼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전국 재배면적 1위인 품종이며, 익산시의 2022년 신동진벼 재배면적은 7,645ha로, 익산시 벼 재배면적(16,450ha)의 4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익산 NH 신동진 쌀은 지난해 매출액이 76억 원에 달하는 익산통합미곡종합처리장의 주요 브랜드 쌀로써 종자 관리에서부터 건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아, 2019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전북 우수 브랜드 쌀에 선발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신동진 벼를 우수 브랜드 쌀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과 농민, 농협의 노력으로 고품질 쌀로 인정받아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수출도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종자 검사 규격에 합격하여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특성이 잘 나타나는 신동진벼를 수량 데이터에만 기반해서 퇴출하겠다는 것은 기준 자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잘못된 정책이다.

또한 신동진 벼는 단위 면적당 높은 생산량을 자랑하여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진벼를 매입 제한과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이 지난 20여 년간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상품 가치와 투입된 예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과 같다.

더욱이 수개월째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밥 한 공기 쌀값은 300원이 되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쌀값 폭락과 농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참동진 벼의 검증을 위해 최소 5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만큼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매입 제한과 보급종 수매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농민들과 충분한 재논의를 하여 단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신동진벼의 상품 가치와 농업인단체연합회 의견을 도외시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과 소통하여 신동진 벼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최소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하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생산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3월 22일

익 산 시 의 회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정한 판결 촉구 건의문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의 조속한 해결과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배출업체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구. 해동환경)에 복구재로 불가능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기물로 인한 비소, 페놀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많은 양의 침출수가 연일 발생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 불안은 오로지 낭산면 주민들이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배출업체는 관할 처분청으로부터 불법 폐기물과 그로 인해 오염된 폐기물 제거, 침출수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 확산 방지 등의 조치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폐기물과 침출수를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취소소송을 기각하면서 환경오염 원인자로서 폐석산 폐기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였다.

배출업체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함으로써 재산상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사고 발생 이후 소송으로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하는 동안 수년간 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침출수는 20여만 톤이며, 침출수로 인한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만든 저류조(6개, 8만 톤)는 만수위에 이르러 저류조 외벽으로 스며나오고, 저류조 붕괴 조짐까지 있었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 게릴라성 폭우, 태풍 등 강우로 인한 침출수 유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침출수를 차집하는 관정에서 폐수처리장까지 이송하는 펌프와 배관의 고장, 전기누전으로 인한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주민들의 생명 위협과 재산상의 농경지 피해, 지방하천의 환경오염 확산 등의 긴박한 상황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되었다.

배출업체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 광재류와 폐주물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와 페놀이 검출되는 침출수 발생만으로도 시급성이 있으며, 2021년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때에도 침출수는 발생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 침출수를 차집하여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본적으로 침출수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랴”속담이 있듯이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발생은 명백한 사실이고, 현장검증에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배출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는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었고, 무차별한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이는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의 오염된 환경 복원 책임을 외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배출업체들은 잘못을 부정한 체 사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과 익산시 그리고 나아가 재판부까지도 기만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환경오염 원인자로서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응당 처리해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의지도 없이 소송만 일관하며, 시간 끌기에 급급한 배출업체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금까지도 폐기물과 침출수로 고통받고 있는 낭산면 주민들을 위해 법의 정의로움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오염사고 해결을 위해 실시한 행정대집행 관련 모든 소송에‘자기책임의 원칙’을 각인시키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15일

익 산 시 의 회